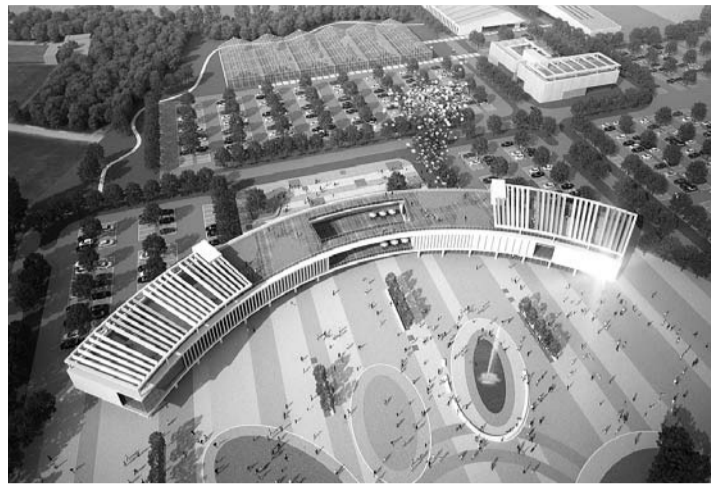


# 무안에 전국 최대 첨단농업단지 조성

### 환경면 일대 342억 들여 2022년 완공 자연생태농업 체험장 등 건립 형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무안에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복합단지(조감도)가 조성된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환경면 일원 19만1599㎡(약 6만평) 규모의 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42억원을 들여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첨단농업복합단지는 농업인을 위한 미래농업을 실현하고 도시생활에 지든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체험하고 치유하는 공간이다.

또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교류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신축과 함께 스

마트팜 실습·체험·교육시설, 농산물 조사분석실 등 과학영농 기반 시설로 활용된다. 양파 우량종자 재종포,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포, 양파·마늘 신기술 실증포 등 각종 신기술이 도입된다.

농업용 드론 등 농기계의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41, 농촌과 도시가 교류하고 농업인

과 도시 소비자가 휴식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연생태농업 체험장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 팜카페와 로컬푸드 식당,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6차산업 체험형 방문객 센터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토지매입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8년부터 계획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무안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영광군, 개인용 'e-모빌리티' 주행 안전성 실증사업 착수

###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대상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광군이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 안전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법성면 입암리 자전거 전용도로와 불갑사 관광지구로 이어지는 총 10.6km 구간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활용해 이뤄진다.

개인용 e-모빌리티 이동수단은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교육, 보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 인증기준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실증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 제품의 시장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7월 중순부터는 일반인 시험자도 실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일반로, 알바천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와 이륜차, 1~2인용 이동수단 등을 뜻한다.

영광군이 지역혁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기업 19개사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이 참여 중이다.

이들 기업과 기관은 전기자전거·개인용이동수단(PM)·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과 e-모빌리티 기업지원을 비롯해 법적 정비·교통영향 분석, 도로시설 기준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모빌리티 관련 안전기준과 운영기준 마련할 것"이라며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신안군, 다도해 자전거여행 코스 확대

### 기존 500km에 115km 추가

휴가철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거리두기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안 1004섬 자전거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한 자전거 코스를 기존 500km에서 115km를 새롭게 추가했다.

신안군은 그동안 해안도로, 방조제길, 염전길, 노두길 등 총 8개 코스 500km의 자전거길을 운영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자전거 길은 압해도 코스에 12사도 순례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기점·소악도 25km 구간, 임자도와 증도의 길목에 위치한 지도

읍 42km다. 신안군은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코스를 직접 돌아보고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이달 중에 자전거 코스를 개선 보완해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국적 자전거 마니아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로 자전거 여행의 수요가 주춤했는데 일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자체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자전거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며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동호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자전거 투어, 사이클링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자전거 여행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은 다도해 자전거여행 코스를 기존 500km에 새롭게 115km를 추가했다. <신안군 제공>

## 기자 노트

### 목포시의회 '웃웃' 벗은 코미디 의장선거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지난 1일 진통 끝에 새롭게 꾸려졌다.

4선의 더불어민주당 박창수의 의원과 6선을 지낸 무소속 장복성 의원 간 맞대결에서 11대 10의 박빙 승부 끝에 박 의원이 승리했다.

민주당과 비민주당이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치러진 의장 선거는 의회에서 열세인 비민주당의 약진이 돋보인 판이었다.

두 세력 간 격렬한 신경전은 급기야 의원들이 지난 휴대전화 수거와 결속(상)을 탈의한 채 투표에 임하는 비민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으로 절정에 치달았다.

비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이 휴대전화 단속에 초점을 맞춰 '상의 탈의 후 투표장 입장'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인 이면에는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온 이탈표 방지책 정보 때문이었다.

무소속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결속을 위해 투표용지 기표 내용을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남겨 확인하는 치졸한 발상을 했다"며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목살되는 공개 투표가 될 공산이 커 방지 차원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상의 탈의라는 조강수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총 21명의 의원 중 13명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2명의 이탈표

가 생긴 셈이다.

실제 무소속 문차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비민주당 몫으로 단독 후보로 나선 기획복지위원장 투표와 관련해 민주당 모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할 것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비표(특정위치)를 정해줬다"면서 "이에 반발하자 (자신)이 출마한) 기획복지위원장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해 결국 13대 8로 부결됐다"고 폭로했다. 문 의원은 이어 "목포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당 행위에 대한 지역위원회와 징계 청원을 받아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이탈자 색출은 요원하다.

오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획복지위원장 선거와 상임위 위원을 배정할 예정인 가운데 비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수위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민주당 의원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발목잡기에 나설 조짐도 보인다. 파행으로 치닫는 후반기 목포시의회 난항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의장 선거를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 '봉숭아학당'이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 협치가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pjb@kwangju.co.kr

# 완도군, 마을호텔 등 해양치유 마을기업 3개 설립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마을기업 3개를 설립한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설립 지원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마을기업 설립에 나섰다.

마을기업 설립은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대상 지역인 신지면과 청산면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소득·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아직 마을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 현장 여건과 수익성 차원에서

신지면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 지역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마을호텔과 청산면에 조성 예정인 해양치유공원 운영 관리, 해양치유 건강 도시락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미세먼지 없는 청정 완도에서 재배되는 해조류와 황칠, 색깔 보리 등 완도의 농수특산물에 차별화를 두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

## 세열골

###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재난·안전사고 대응"

#### 남정열 목포소방서장

"항상 시민 곁에서 적극적인 예방 행정 및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를 갖춰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3대 목포소방서장에 남정열 소방장이 최근 취임했다. 남 신임 서장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으며 소방조직 내 신뢰가 두터운



는 평가다. 남 서장은 지난 1984년 공직에 입문해 전남119종합상황실장, 중앙소방학교, 청와대 경호처 소방안전기획팀장,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